

## 풍차바지 제도에 관한 연구

- 한복구성학 책을 중심으로 -

김 정 호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Pungcha Baji

- Focusing on the Books Entitled "Hanbok Construction"-

Chungho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nam University

(투고일: 2008. 11. 10, 심사(수정)일: 2008. 12. 22, 게재확정일: 2008. 12. 31)

#### ABSTRACT

Based on instructions in the textbook "How to Construct Korean Costumes" which I authored, my university students were required to make Pungcha-Baji (Korean traditional pants for children) for one-year-old boys. While examining the students' construction, I found that the side seams of the vest and pants did not line up but were improperly twisted. It was found that the pants did not cover the child's backside because the width of the back was smaller than the width of the front when one of the side panels and the large center panel in the front was half the size of the hip and one of the side panels and the small panel in the back was four fifths of half the size of the hip.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waist size of the pants and the bottom hem of the vest, the textbooks instruct that the amount of material and the number of pleats (i.e. 4 pleats) on the pants and the vest should be the same. Finding this mistake led me to investigate Pungcha-Baji construction in related textbooks. Thus with the textbook instruction, the side seams of the pants and the vest do not match and are improperly twisted. Hence, as a solution, the pleats should be made and adjusted after matching the side seams of the pants and the v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urrently available Pungcha-Baji related textbooks and determine the correctness of their instructions and to ultimately provide correct construction methods for Pungcha-Baji pattern for academic purposes.

Key words: how to construct korean costumes(우리옷 만들기), pungcha-baji pattern(풍차바지 원형), vest(조끼허리) Korean costume textbook(한복 구성학책), pants(바지)

## I. 서론

풍차바지는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부터 4~5세까지의 어린이에게 입히는 바지이다. 앞은 어른바지와 같이 큰사폭과 작은사폭을 달아 막히게 만들고, 뒤는 밑을 트고 여미게 되어 있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편리한 바지이다. 입는 법은 저고리 속에 입는 것이 원칙이나 평상복으로 입힐 때에는 저고리 위에 입혀 옷웃으로 사용하면 입고 벗기에 편리하고 보온도 잘 된다<sup>1)</sup>. 풍차바지는 남녀 공용이나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남아의 풍차바지는 밑이 트였으며 뒤로 여미 입는 바지이고, 여아의 풍차바지는 사폭을 달지 않고 마루폭에 앞 밑과 뒤 밑을 단다.

2년전 <우리 옷 만들기><sup>2)</sup> 책의 제도에 따라 들쟁이 풍차바지를 제도하고 학생들과 함께 만들다보니 바지 뒤가 여미지지 않았으며, 조끼허리 옆선과 바지의 옆선이 맞지 않고 뒤틀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2000년 우리 옷 만들기가 나온 이래 두 번의 개정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책의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전에 무형문화재 제89호인 침선장과 함께 제도법 없이 만들었던 풍차바지는 반듯하게 뒤도 잘 여미진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부터 한복 바느질법은 제도법을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수 대로 옷감을 접어 마름질하였으나, 현재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한복 만들기가 패턴으로 개발되어 책으로 출판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을 비롯한 후세대 학자들이 책을 쓸 때 참고한 책을 꼼꼼하게 그 제도법대로 만들어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생각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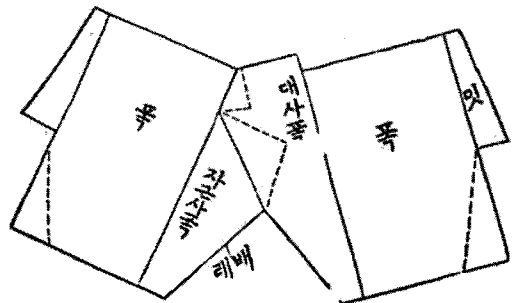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옷 만들기>라는 본인의 저서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출판된 대부분의 한복구성책속의 풍차바지 제도를 분석하여 만들어 본 후 풍차바지의 올바른 제도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남아 풍차바지 제도에 관한 연구로서, 기존의 책에 나와 있는 풍차바지 제도법대로 제작한 후 분석, 수정을 거쳐 풍차바지와 조끼허리 제도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한복구성학 책(<우리옷 만들기>의 21종)에 나와 있는 풍차바지 제도법을 분석하고 실제 제작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책은 다음과 같다. ①우리옷 만들기<sup>3)</sup> (김정호외 1인) ②우리옷 만들기<sup>4)</sup> (안명숙외 2인) ③전통한복구성학<sup>5)</sup> (박선영) ④우리옷 만들기<sup>6)</sup> (심화진외4인) ⑤한복 만들기<sup>7)</sup> (구혜자) ⑥한복 만들기<sup>8)</sup> (홍나영 외3인) ⑦우리옷 만들기<sup>9)</sup> (백영자의 1인) ⑧침선장<sup>10)</sup> (정정완) ⑨한복실기<sup>11)</sup> ⑩한국의복구성<sup>12)</sup>(김순심외1인) ⑪생활한복<sup>13)</sup> (조효순) ⑫한복구성학<sup>14)</sup> (이주원) ⑬전통한복양식<sup>15)</sup> (손경자) ⑭한복구성학<sup>16)</sup> (이정옥외2인) ⑮조선재봉전서<sup>17)</sup> (김숙당) ⑯오방색 아이옷<sup>18)</sup>(박광훈) ⑰한국의상구성<sup>19)</sup>(박경자의외1인) ⑱우리옷변천과재봉<sup>20)</sup>(권계순) ⑲한복구성학<sup>21)</sup>(김분옥) ⑳한복구성학<sup>22)</sup>(김분칠) ㉑전통한복구성<sup>23)</sup>(박영순) ㉒한국의복구성실습<sup>24)</sup>

## II. 풍차바지 제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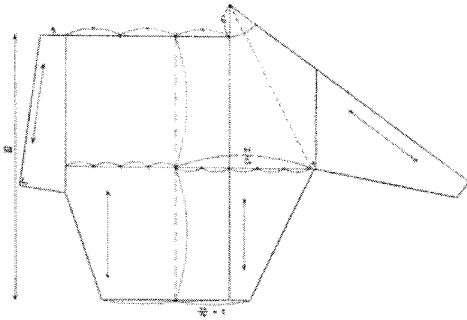
제도 그림 없이 예전 방법으로 접어서 만들어준 경우 뒤쪽에서 자연스럽게 싸지는 것을 조선조 말기 왕실복식<sup>25)</sup>에 남아있는 어린이 풍차바지의 뒷모습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재봉전서<sup>26)</sup>에 나오는 <그림 1>을 보면 시접을 그대로 접어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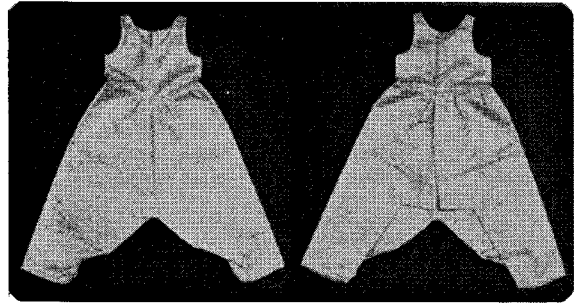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재봉전서에 나온 풍차바지제도

### 1. 풍차바지 제도 유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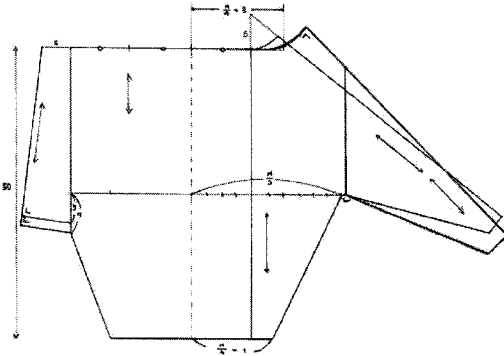
풍차바지의 바지 폭 너비는 풍차바지 앞의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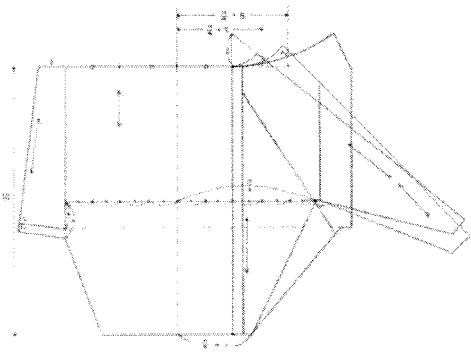
〈그림 2〉 앞의 마루폭 너비와 큰사폭 너비를  $H/2$ 로 하고 뒤는  $H/2 \times 4/5$ 로 한 제도



[사진 1] 〈그림 2〉와 같은 제도법으로 만든 후의 사진



〈그림 3〉 까마귀머리 시작점에서 수직으로 6cm올려준 경우와 바지 앞 허리의 반을  $H/4 + 3$ 로 하였을 때의 비교



〈그림 4〉 바지 앞 허리의 반을  $H/4 + 3$ 로 하였을 때의  $H/4 + 8$ 로 했을 때의 비교

폭+큰사폭) 너비를  $H/2$ 로 하고 뒤는  $H/2 \times 4/5$ 로 하였다. (까마귀머리 시작점에서 수직으로 6cm올려준 경우)

〈그림 2〉와 같이 대부분의 책<sup>27)</sup>에서 바지폭의 너비는 풍차바지 앞의 (마루폭+큰사폭)너비를  $H/2$ 로 하고 뒤는  $H/2 \times 4/5$ 로 하였다. 까마귀머리 시작점에서 수직으로 6cm올려준 경우 뒤쪽보다 앞의 너비가 작는데 일정하게 주름을 잡아 조끼허리에 연결할 경우 옷이 뒤틀리게 되는 것을 알았다 [사진 1]은 〈그림 2〉와 같은 제도법으로 만든 후의 사진이다. [사진 1]의 오른쪽 부분을 보면 뒤가 여며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의 왼쪽은 조끼허리와 바지허리부분이 일그러져있음을 알 수 있다.

## 2. 풍차바지 제도 유형2

풍차바지의 바지 폭 너비는 풍차바지 앞의 (마루폭+큰사폭) 너비를  $H/2$ 로 하고 뒤는  $H/2 \times 4/5$ 로 하였다. (바지 앞 허리의 반을  $H/4 + 3$ 로 하였을 때와  $H/4 + 8$ 로 한 경우)

〈그림 3〉에서 까마귀머리 시작점에서 수직으로 6cm올려준 경우와 바지 앞 허리의 반을  $H/4 + 3$ 로 하였을 때를 비교하면 바지허리폭의 너비가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 바지 앞 허리의 반을  $H/4 + 3$ 로 하거나,  $H/4 + 8$ 로 한 경우도 바지허리폭의 너비가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풍차바지 제도를 비교해 보니 본래

접어 마름질하던 것을 패턴으로 개발하면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문제점이 후속 교체들에도 계속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한복구성책에서 풍차바지의 바지 폭 너비는 풍차바지 앞의 (마루폭+큰사폭) 너비를  $H/2$ 로 하고 뒤는  $H/2 \times 4/5$ 로 하였고, 책마다 바지 앞 허리 너비에서 차이(까마귀머리 시작점에서 수직으로 6cm를 올려 제도한 경우와 바지 앞 허리의 반을  $H/4+3$ 으로 하거나  $H/4+8$ 로 제도하였다)가 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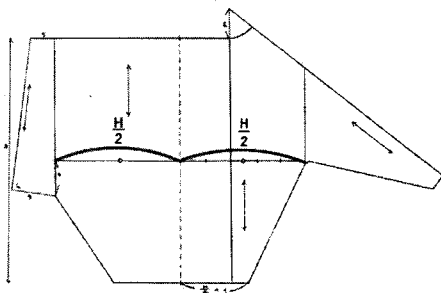
### Ⅲ. 풍차바지 제도 수정 연구

#### 1. 풍차바지 부분

대부분의 책에서 풍차바지 제도법은 옆선에서 바지를 나누어 보았을 때, 앞 뒤의 폭이 맞지 않았다. 앞 뒤 너비가 같지 않아 뒤가 여며지지 않았으므로 바지 앞 뒤 너비를 같게 한 제도법으로 제작해 보았다. 기존의 제도법은 바지의 옆선을 중심으로 하여 바지 뒷폭 너비가 앞의  $4/5$ 였는데, 수정 제도법은 앞 뒤 똑 같이  $H/2$ 로 같다.

<그림 5>와 같이 (마루폭+큰사폭) 너비를  $H/2$ 으로 하고 옆선을 중심으로 한 뒤마루폭의 너비도  $H/2$ 로 하여 만들어 보면 큰사폭의 배래와 뒤 마루폭의 배래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사진 2]는 까마귀머리 시작점에서 수직으로 6cm를 올려 제도한 후 만든 경우다.



<그림 5> 옆선을 중심으로 앞 마루폭 너비와 큰사폭 너비를  $H/2$ 으로 하고 뒤 마루폭의 너비를  $H/2$ 로 한 제도

[사진 3]은 바지 앞 허리의 반을  $H/4+3$ 으로 제도한 후 만들어 본 경우다.

[사진 4]는 제도에 따라 바지허리폭의 너비가 차이 남을 보여준다 맨 오른쪽 사진은 바지 앞 허리의 반을  $H/4+8$ 로 하여 만들어 본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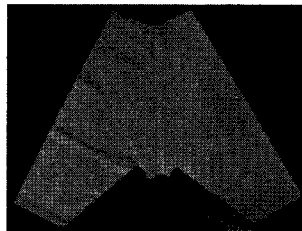
까마귀머리를 좁게 혹은 넓게 하느냐에 따라 마루폭의 옆선을 맞추었을 경우 [사진 5]의 오른쪽 위와 같이 앞부분의 주름 양과 [사진 5]의 오른쪽 아래와 같이 뒷 주름양은 다르게 나타난다.

수정 제도법으로 만들어진 바지를 조끼허리를 달지 않았을 경우 [사진 4]나 [사진 5]와 같이 바지 앞 뒤 사폭의 배래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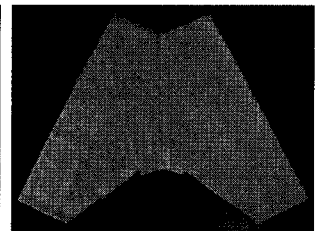
[사진 6]은 바지의 옆선을 중심으로 하여 바지 뒷폭 너비가 앞의  $4/5$ 인 [사진 1]과는 달리 똑 같이  $H/2$ 으로 폭을 같게 하였으나 옆선을 맞추지 않고 바지 앞과 뒤의 여유분을 일정하게 나눠 주름을 잡아 조끼허리에 달아주었더니 뒤틀림을 알 수 있었다.

[사진 7]은 앞뒤 바지 폭의 넓이를 같게 하고 까마귀 머리를 6cm로 올려 원형을 그린 후 앞뒤 여유분을 따지지 않고 일정하게 주름 [(바지둘레-조끼허리둘레)/주름수 = 주름하나의분량]을 넣어 조끼허리에 붙였을 경우 옆선이 맞지 않아 뒤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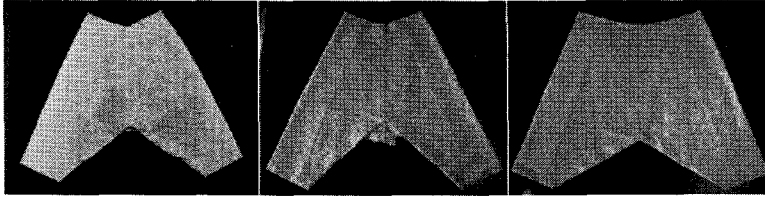
바지 앞과 뒤의 여유분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일정하게 주름을 잡아 조끼허리와 연결하니 뒤도 잘 여며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진 6]과 [사진 7]과 같이 조끼허리의 옆선과 바지 옆선이 일치하지 않아 옷이 뒤틀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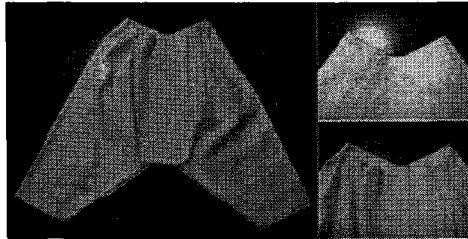
[사진 2] 까마귀머리 시작점에서 수직으로 6cm 올려 제도한 후 만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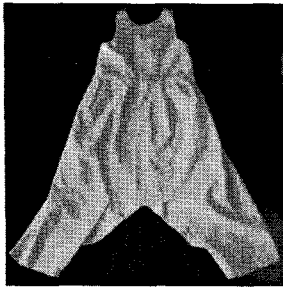
[사진 3] 바지 앞 허리의 반을  $H/4+3$ 으로 제도한 후 만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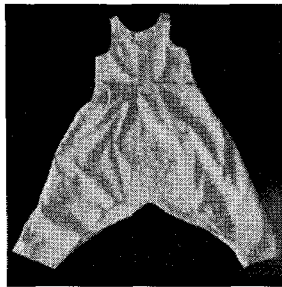
[사진 4] 제도에 따라 바지허리폭의 너비가 차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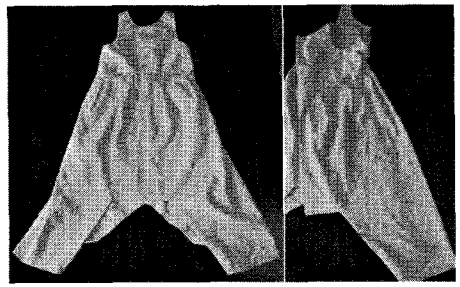
[사진 5] 앞 뒤의 주름분량이 다름



[사진 6] 옆선을 안 맞춤



[사진 7] 앞 뒤 차이 없이 주름의 양을 일정하게 넣어줌



[사진 8] 조끼허리와 바지의 옆선을 맞추지 않고 주름을 일정 하게 넣은 경우

즉 수정된 풍차바지 제도법에 따라 앞뒤 바지 폭의 넓이를 같게 하고 바지 앞 허리의 반을  $H/4+3$ 으로 그린 후 조끼허리 옆선과 바지 옆선을 맞추지 않고 앞뒤 일정하게 주름(바지둘레-조끼허리둘레)/주름수=주름하나의분량]을 넣어줄 경우 바지 앞과 뒤의 주름분량이 달라 옆선이 맞지 않고 뒤틀렸다. 따라서 조끼허리의 옆선과 바지허리 옆선을 먼저 맞춘 후 앞뒤주름분량을 계산한 후 주름잡아 연결하여야 함을 알았다.

[사진 8]의 오른쪽 사진은 바지 옆선을 맞추니 조끼 허리의 옆선이 맞지 않았다 [사진 8]의 왼쪽 사진은 조끼허리 옆선을 맞추면 바지옆선이 맞지 않아 일그러졌다. 풍차바지를 만들 때 기존의 제도법들은

바지의 주름량을 결정하는데 바지둘레에서 조끼허리 둘레의 길이를 뺀 나머지 분량으로 앞 뒤 같게 주름을 잡아 풍차바지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바지는 옆선과 조끼허리 옆선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바지의 옆선이 뒤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끼허리의 옆선과 바지폭의 옆선을 맞춘 후 주름량을 계산하면 앞뒤 주름 분량이 달라진다. 바지허리 제도법에서 까마귀 머리 너비가 제도법에 따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즉 까마귀 머리 분량의 너비가 작으면 바지 앞주름 분량이 작고, 까마귀 머리 분량이 많으면, 바지 앞주름 분량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 2. 조끼허리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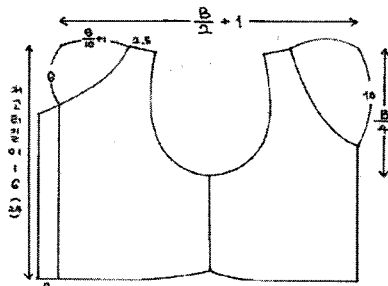
풍차바지를 잘 만들려면 바지제도뿐만 아니라 조끼허리제도도 함께 비교 연구해야함을 알았다. 조끼허리 길이가 다음과 같이 책에 따라 차이 남을 알 수 있었다.

조끼허리의 제도를 바지 뒤가 잘 여며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지 밑의 윗너비 만큼 여며 질 수 있는 충분한 여밈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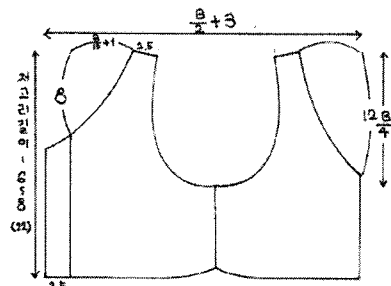
책들에서는 <그림 6>과 같이 여밈의 분량이 바지 밑이 여며 지기에 턱없이 적었으며 아기들이 입었을 때, 조끼허리의 길이가 너무 길고, 너비가 너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과 같이 조끼허리의 길이를 조금 짧게 하고 허리너비를 더 넓게 해 주었다. 즉 너비를  $B/2+3$  으로 하여 품을 좀 더 여유롭게 했으며, 길이는 기존보다 조금 짧게 하여 (저고리 길이 - 6~8) 로 하여 약 22cm가 되었다.

<표 4> 책에 따른 조끼허리길이

	책이름	지은이	조끼허리길이제도	조끼허리길이
1	우리옷만들기	김정호 외1	저고리길이(30) - 6	24
2	우리옷만들기	안명숙 외1	저고리길이-5	
3	전통한복구성학	박선영	저고리길이(30) - 5	25
4	우리옷만들기	심화진 외5	저고리길이(28) - 4	24
5	한복만들기	구혜자		25
6	한복만들기	홍나영 외3	저고리길이(30) - 4	26
7	우리옷만들기	백영자 외1	저고리길이(28) - 4	24
8	침선장			20
9	한복실기		저고리길이(28) - 3~4	24
10	한국의복구성	김순심 외1		24
11	생활한복	조효순		24
12	한복구성학	이주원	저고리길이(28) - 3~4	24
13	전통한복양식	손경자		20
14	한복구성학	이정옥 외2	저고리길이(30) - 4	26
15	조선재봉전서	김숙당		
16	오방색 아이옷	박광훈		23
17	한국의상구성	박경자	저고리길이-4	24
18	우리옷 변천과 재봉	권계순		
19	한복구성학	김분옥	저고리길이-2	
20	한복구성학	김분칠		
21	전통한복구성	박영순	저고리길이-3	24
22	한국의복구성실습	교육부	저고리길이-4	



<그림 6> 기존의 조끼허리제도



<그림 7> 수정된 조끼허리제도

#### IV. 결론

기존의 풍차바지 제도 방법으로 풍차바지를 만들 경우, 앞(마루폭+큰사폭)의 너비는 H/2, 뒤는 H/2 x 4/5로 하기 때문에 뒤쪽의 너비가 작아 바지 뒤가 여머지지 않고 벌어졌다. 조끼허리의 경우는 조끼허리 둘레와 바지허리둘레의 나머지 주름분량이 앞과 뒤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법에는 앞뒤 같은 양의 주름을 각각 4개씩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끼허리의 옆선과 바지의 옆선이 맞지 않아 옷이 뒤틀렸다. 또한 조끼허리의 길이가 길고 품은 작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기준치수는 바지길이 50cm 엉덩이둘레 52cm 가슴둘레52cm로 하였다.

##### 1. 풍차바지 제도 제안

바지 뒤폭을 넓히고 앞의 까마귀머리를 넓혀서 바

지제도를 보완하였다.

조끼허리제도도 여밈의 분량을 좀 더 주고, 길이를 줄이고 품을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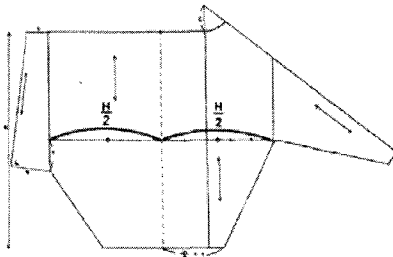
바지의 주름분량은 조끼허리 옆선과 바지 옆선을 맞춘 후 여분의 양을 계산한 후 앞주름 분량과 뒷주름 분량을 따로 계산하여 주름을 잡았다.

$$\text{앞 주름 분량} = (\text{풍차바지 앞 허리너비} - \text{조끼허리 앞 너비}) \div \text{주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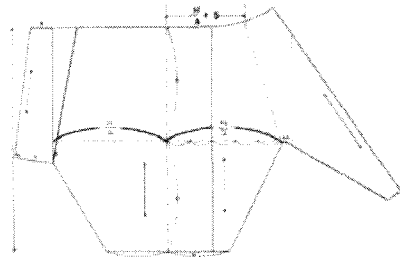
$$\text{뒤 주름 분량} = (\text{풍차바지 뒤 허리너비} - \text{조끼허리 뒤 너비}) \div \text{주름 수}$$

##### 1) 바지 제도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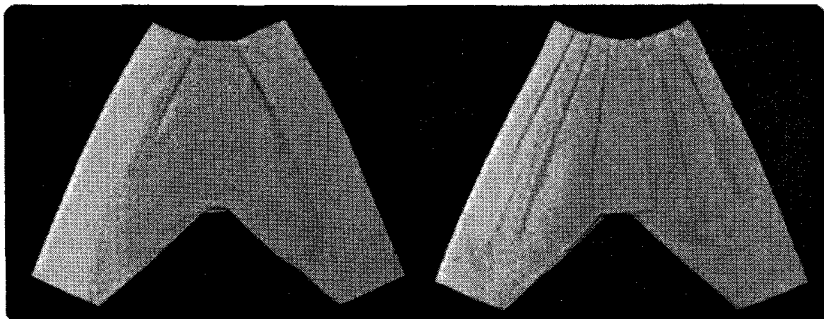
바지의 옆선을 중심으로 하여 바지 뒷폭 너비가 앞 너비의 4/5 였는데, <그림 5>와 같이 앞뒤 폭을 같게 하여 뒤가 여머지게 하였다. 먼저 <우리 옷 만들기> 제도법으로 할 경우, 바지 앞의 여유분량이 없어서 주름 양이 없다. 따라서 <그림 8>과 같이 바지 앞허리의 반을 H/4+5로 제안하면 앞에 적당한 주름분



<그림 5> 바지폭을 앞뒤 같게한경우



<그림 8> 제안된 풍차바지제도



[사진 9] 제안된 제도법으로 완성한 풍차바지

량이 생긴다. 앞 주름분량은 7cm, 뒤 주름분량은 28cm이므로 앞주름이 3.5cm씩 2개, 뒷주름은 4.7cm씩 6개가 생긴다. 이렇게 계산하여 주름을 잡아 만들었을 때 [사진 9]와 같이 되었다. 뒷 주름양을 줄이고 싶으면 <그림 8>의 점선과 같이 뒤 밑과 마루폭 연결선을 깎아줄 수도 있다.

## 2) 조기허리 제도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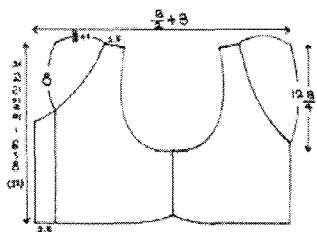
조기허리 뒷여밈의 분량을 바지 밑의 윗너비 만큼 주기 위해 바지 밑의 윗너비가 5cm인 것을 고려하여 2.5cm로 주었다. 완성 후 포개어 졌을 때 조기허리의 여밈은 바지 밑의 윗너비와 같은 5cm가 된다. 가슴

둘레는 52cm로 하여 그렸다. <그림 7>과 같이 조기허리의 길이를 조금 짧게 하고 허리너비를 더 넓게 해 주었다. 즉 너비를  $B/2+3$  으로 하여 품을 좀 더 여유롭게 했으며, 길이는 기존보다 조금 짧게 하여 (저고리길이 - 6~8)로 하여 약 22cm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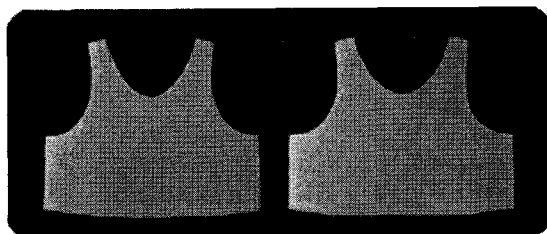
## 2. 제안된 제도법에 따른 풍차바지 완성

제안 후 풍차바지는 제안 전보다 뒤가 잘 여며 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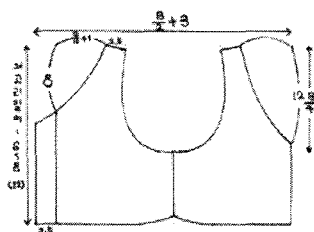
물론 풍차바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또 평면상으로 뒤가 여며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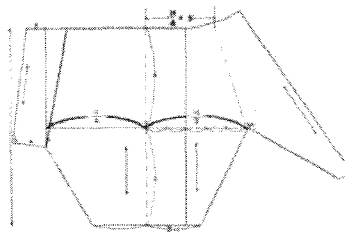
<그림 7> 제안된 조기허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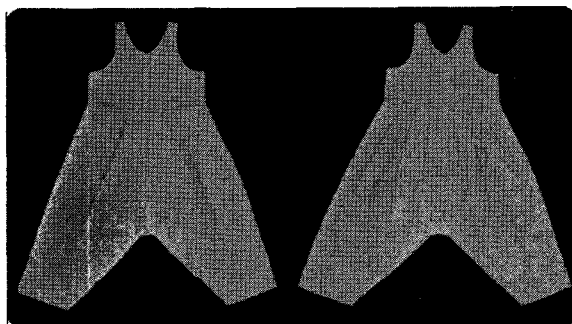
[사진 10] 제안제도법으로 완성된 조기허리



<그림 7> 제안된 조기허리제도



<그림 8> 제안된 풍차바지제도



[사진 11] 제안된 제도법에 따른 풍차바지 완성사진



않았어도 착장 후에는 뒤가 여며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면상에서 바지 뒤가 여며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착장했을 때 뒤가 여며지는 것은 제대로 여며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많은 책들을 비교한 결과 많은 책들이 서로 참고로 하다 보니 꼼꼼한 확인 없이 그대로 재인용되어 계속되는 오류가 이어짐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책에서 조끼허리의 옆선과 바지 옆선을 맞추지 않고, 앞 뒤 주름 분량을 계산하지 않은 채 조끼허리와 바지를 연결할 경우 풍차바지가 뒤틀리게 되었다. 이번 제안 풍차바지는 조끼허리의 옆선과 바지 옆선을 먼저 맞추어 주름 분량을 계산하여 바지와 조끼허리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평면상으로는 착장 시에도 바지가 편안하였다 앞으로 우리옷의 제도법과 만들기에 애정을 갖고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정호, 이미석 (2004). *우리옷 만들기 (제2개정판)*. 한남대출판부, p. 104.
- 2) *위의 책*.
- 3) *위의 책*, pp. 104-111.
- 4) 안명숙, 박진은, 장현주 (2007). *우리옷 만들기*. 교문사 pp. 249-255.
- 5) 박선영 (2001). *전통한복구성학*. 수학사, pp. 30-35.
- 6) 심화진, 김월계, 이병화, 윤하성, 최은경 (2004). *우리옷 만들기*. 성신여대출판부, pp. 122-128.
- 7) 구혜자 (2002). *한복만들기(II)*.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p. 29-33.
- 8) 홍나영, 김남정, 김정아, 김지연 (2004). *한복만들기*. 교문사, pp. 147-153.
- 9) 백영자, 최혜울 (2004). *우리옷 만들기*. 교학연구사, pp. 150-156.
- 10) 국립문화재 연구소 (1998). *침선장*, pp. 58-65, pp. 68-73.
- 11) 한국산업인력공단 (2003). *한복실기*, pp. 68-73.
- 12) 김순심, 이유경 (1998). *한국의복구성*. 교학연구사, pp. 218-223.
- 13) 조효순 (1985). *생활한복*. 계몽사, pp. 100-101.
- 14) 이주원 (1999). *한복구성학 (개정판)*. 경춘사, pp. 316-322.
- 15) 손경자 (1990). *전통한복양식*. 교문사, pp. 230-233.
- 16) 이정옥, 남후선, 진현선 (1999). *한복구성학*. 형설출판사, pp. 145-150.
- 17) 김숙당 (1992). *조선재봉전서*. 민속원, pp. 89-90.
- 18) 박광훈, 이민주 (2005). *침선장 박광훈의 오방색 아이*. 다섯수레, pp. 36-41.
- 19) 박경자, 임순영 (2005). *한국의상구성*. 수학사, pp. 226-229.
- 20) 권계순 (1983). *우리옷변천과 재봉*. 수학사, pp. 155-157.
- 21) 김분옥 (1983). *한복구성학*. 수학사, pp. 130-133.
- 22) 김분칠 (1982). *한복구성학*. 교문사, pp. 242-246.
- 23) 박영순 (1995). *전통한복구성*. 신양사, pp. 284-292.
- 24) 교육부 (1999). *한국의복구성실습*, pp. 104-108.
- 25) 김영숙 (1987). *조선조말기왕실복식*. 민족문화문고간행회, pp. 128-130.
- 26) 김숙당 (1992). *앞의 책*, pp. 89-90.
- 27) *우리옷 만들기* 김정호의 1인 *우리옷 만들기* 안명숙의 2인 *우리옷 만들기* 심화진의 4인 *한복 만들기* 홍나영의 3인 *우리옷 만들기* 백영자의 1인 *한복실기* 한국의복구성 김순심의 1인 *생활한복* 조효순 *한복구성학* 이주원 *전통한복양식* 손경자 *한복구성학* 이정옥의 2인